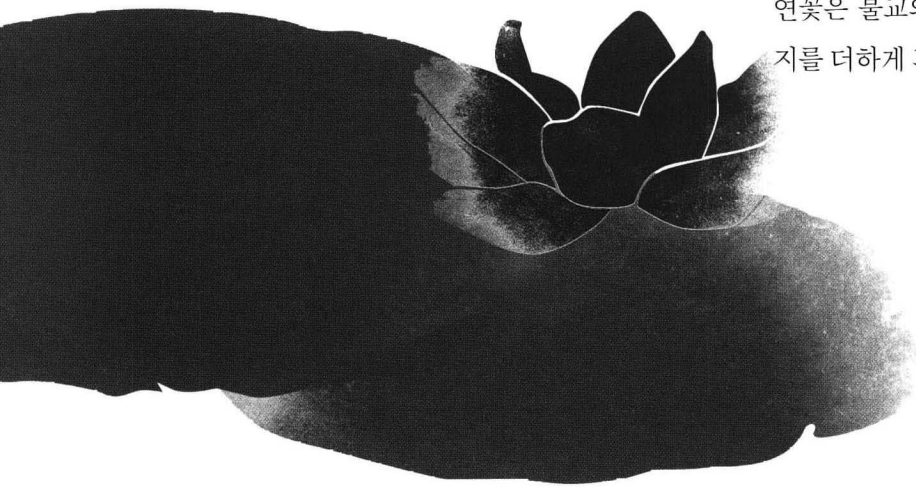


나와 함께 연꽃을 사랑할 사람은 누구인가? _____ 기래완

❁ 군자의 꽃이라고 하면 누구나 사군자 - 매·란·국·죽 - 를 떠올리리라. 그러나 이들보다 일찍 군자를 상징하는 꽃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던 꽃이 있으니, 바로 연꽃이다. 물론 연꽃은 애초 불교를 상징하는 꽃으로서 동아시아 문화권에 편입되었다. 우리의 경우도 고려 때까지는 연꽃은 오로지 불교의 꽃이었다. 그러나 조선조에 들어와서 연꽃은 불교의 꽃인 동시에 유교의 군자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더하게 되었다.



모란은 화중 왕이요, 향일화는 충신이로다.
연화 군자요, 행화 소인인지라.
국화는 은일화요, 매화 한사로다.
박꽃은 노인이요, 석죽화는 소년이라.
규화 무당이요, 행당화는 창녀로다.
이중에 이화 시객이요,
홍도·벽도·삼색도는 풍류랑인가 하노라.
(화편花篇)


❁ 우리의 유명한 꽃노래이다. 이 노래에서 꽃에 대한 우리 민중의 저변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연꽃을 군자라고 노래하고 있다. 불교를 상징하던 연꽃이 왜 군자의 꽃이 된 것일까? 다음의 짧은 글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물과 육지에서 자라는 초목의 꽃들 가운데는 사랑할 만한 것이 매우 많다. 진나라 도연명은 홀로 국화를 사랑하였는데, 이씨의 당나라 이후, 세상 사람들은 몹시 모란을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홀로, 연꽃이 진흙 속에서 나왔으나 더럽지 않고, 맑은 물결에 몸을 씻었으나 오염하지 않고, 줄기의 가운데는 통해 있으면서 밖으로는 곧고, 덩굴이나 가지

기래완 _____ 중앙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국문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한국한문학 전공)했다. 문학박사.
 현재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원 연구원, 홍익대 겸임교수이다.
 저서에 《黃梅泉詩 研究》, 역서에 《東詩話》《精言妙選》《據梧齋集》
 《高宗辛丑儀軌》 등이 있다.



도 뻗어나지 않고, 향기는 멀리 퍼지면서 더욱 맑고, 의젓하게 정결히 서 있어서 멀리서만 바라볼 수 있을 뿐 함부로 완상할 수 없는 점을 사랑한다. 나는 생각한다. 국화는 꽃 가운데 은일자요, 모란은 꽃 가운데 부귀자요, 연꽃은 꽃 가운데 군자이다. 아! 국화를 사랑함은, 도연명 이후 그 소문이 드문데, 연꽃을 사랑함을 나와 함께 할 사람은 누구일까? 모란에 대한 사랑만이 많기만 하구나.

 송나라 주돈이의 <애련설愛蓮說>이다. 주돈이는 자가 무숙茂叔인데, 세상에선 염계濂溪 선생이라 불렸다. 인품이 몹시 고고하고, 흥중은 광풍제월光風霽月처럼 쇠락灑落하였다고 한다. 신유학이라 불리는 성리학의 개조開祖로서, '태극太極'이니 '이기理氣'니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인물이다. 그의 학문은 정호·정이 형제를 거쳐 주희에 이르러 소위 '주자학'으로 정리되었다. 이 '주자학'이 조선의 성리학에 끼친 영향이 막대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문을 살펴보자. 진나라 도연명은 홀로 국화를 사랑하였다고 했다. 도연명은 진나라 때 어지러운 정국을 떠나 향리에서 은거하였던 고사高士이다. 그의 은일사상을 표방하고 있는 유명한 <귀거래사歸去來辭>는 동아시아 지식인

의 삶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 그리고 천고의 명구라고 칭송을 받은 '동쪽 울타리 아래서 국화를 따는데, 유연히 남산이 바라보이니采菊東籬下, 悠然見南山'라는 시구로 말미암아 국화는 도연명의 은자로서의 삶을 상징하는 꽃으로서, 은일화가 된 것이다. 그러나 도연명 이후 국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모란만을 사랑한다고 하였다. 모란은 그 화려함과 짙은 향기로 인하여 부귀를 상징하는 꽃이다. 그리하여 일찍부터 꽃의 왕으로 불렸다. 모란에 대한 사람들의 애호는 당나라 때 극에 달했다. 당시 왕공 귀족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보다 진기하고 화려한 모란을 거금으로 사들이는 것이 유행이었다. 따라서 모란에 대한 애호란 세속적 욕망의 표현과 같은 것이다. 주돈이는 말하고 있다. 세상에 도연명 같은 고사는 없어지고, 세속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만 넘쳐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은 비록 도연명처럼 세속을 완전히 떠난 은일자로서의 삶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군자로서의 삶을 추구하겠다고 하였다. 그것을 연꽃의 품성에 의탁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의 선비들은 <애련설>을 정신적 좌우명으로 삼아, 병풍으로 꾸며서 늘 거처하는 서재에 두었다. 또한 못과 누정을 조성하여 연꽃을 심고, '애련당'·'부용정'·'향원정' 등의 현판을 내걸었다. 이렇듯 선비들의 많은 누정이나 서재의 이름이 연꽃과 관련된 것은 모두 <애련설>의 영향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매번 <애련설>을 읽을 때마다, 나는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돌아켜보게 된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나는 진정 조선의 선비들이 부럽다. 평생 연꽃을 사랑하면서, 연꽃처럼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세속적 욕망을 모두 털어버리고, 멀리까지 맑은 향기를 피우고자 했던 그들의 군자정신이 나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든다. 